

텍사스 기쁨의 교회 Joyful Community Church of Texas

2026 성경일독 & Family Worship (4 월 April)

	리딩지저스 성경일독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st	역대하 2 Chronicles 1-36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2nd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Ezra, Nehemiah, Esther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3rd	욥기 Job 1-42	부르심. 칭의
4th	시편 1 Psalm 1-36	성화, 죽음, 영화

우리 집 가정 예배는 ()요일 ()시에 ()에서 드립니다.

Our family worship is held on () day at () o'clock in ().

- 온 가족이 함께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세요.
Decide on the time and place together as a family.
- 가정 예배지를 개인 묵상용(QT)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You can also use the family worship guide for personal devotions (QT).

영어권: 자녀들과 함께 읽는 New Morning Mercies for Teens (Paul Tripp)

- 매일 잠 자기 전에 하루 한 장씩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Every night before bed, read one chapter with your children and share a time of prayer together.

교회 홈페이지(www.joyfulpca.org)를 통해 가정 예배지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1st Week 역대하 2 Chronicles 1-36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Praise: One family member selects a song of praise.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Prayer: One family member leads the prayer.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Message: One family member reads today's message aloud.

[오늘의 메시지] Today's Message

역대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장면으로 시작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루지 않고, 오직 남유다의 왕들, 특히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개혁을 시도한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역대하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9 장에서는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과 봉헌을 다루고, 10-36 장 초반까지는 남유다 왕들의 통치, 개혁과 실패의 역사가 이어지며, 마지막 36 장 후반부에서는 바벨론 포로와 고레스의 귀환 조서로 마무리됩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 고레스 왕이 포로인 유다 백성에게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가 나오는데,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서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포로 이후 유배기는 어린이 성경에서는 자주 생략되지만, 구약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시기입니다. 신앙의 모든 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유배기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믿음을 백성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이번 주 역대하를 통독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선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를 다시 들려주시면서 전하고자 하신 교훈과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econd Chronicles begins with Solomon building and dedicating the temple and ends with the fall of Judah to Babylon and the people being taken into exile. It does not cover the history of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but focuses solely on the kings of Judah—especially Hezekiah and Josiah, who sought reform centered on the temple and the Law.

Second Chronicles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Chapters 1–9 deal with Solomon’s reign and the construction and dedication of the temple. From chapters 10 through the early part of chapter 36, the reigns of the kings of Judah unfold, marked by cycles of reform and failure. The latter part of chapter 36 concludes with the Babylonian exile and the decree of Cyrus allowing the people to return. In particular, the final scene, where King Cyrus permits the exiled people of Judah to return, is not merely a political decision but carries deep theological significance as the fulfillment of God’s covenant.

The period of exile is often omitted in children’s Bible stories, yet it is an essential era for understanding the entire Old Testament. In the painful reality of exile, where every structure of faith seemed to collapse, what kind of faith was God calling His people to have?

This week, as we read Second Chronicles, let us revisit Israel’s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munity that returned to Jerusalem. And as God retells their history, let us reflect together on the lessons and the hope He intended to give them.

[은혜 나누기] Faith Sharing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독하면서,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As you read through the Bible this week, share a verse or passage that stood out to you.

적용 Application

1.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역대기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며 멸망의 원인이 죄였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와 공동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2. 수많은 실패와 멸망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새 언약도 우리의 죄와 실패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나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해지나요?
3. 역대하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들이 귀환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도 회복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신뢰하고 있나요? 오늘 내가 기대할 수 있는 회복은 무엇인가요?

1. The community of Israel that returned from exile looked back on their history through Chronicles and came to realize that sin was the cause of their destruction, and that restoration had begun because God remained faithful to His covenant. Have you experienced God's grace in restoring and raising you or your community again despite your failures?
2. Even through a long history of failure and destruction, God's covenant was never broken. The new covenant fulfilled through Jesus is not bound by our sin and failure. As you remember the grace of this gospel, what fears and anxieties are you set free from?
3. Second Chronicles ends with the decree of Cyrus allowing the exiles to return. Do you trust that God is able to bring restoration even from a place that seems completely ruined? What kind of restoration can you hope for today?

기도 Prayer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Share prayer requests with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오늘의 감사 기도 Today's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Close family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

2nd Week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Ezra, Nehemiah, Esther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Praise: One family member selects a song of praise.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Prayer: One family member leads the prayer.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Message: One family member reads today's message aloud.

[오늘의 메시지] Today's Message

-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

BC 586 남유다 몰락, 성전 파괴

BC 538 포로 귀환 칙령, 성전 재건 지원

BC 516 성전 재건 완성

BC 479 에스더 왕후 책봉

BC 537 1 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 예수아)

BC 458 2 차 포로 귀환 (에스라)

BC 444 3 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

느부갓네살 → 고레스 → 캄비세스 → 다리오 → 아하수에로 → 아닥사스다

포로기 이후 시대, 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활동한 이 시기는 하나님 백성이 이방 땅이나 현실적인 어려운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 줍니다. 에스더서는 여전히 바사 왕궁에 남아 있던 유대인들의 절박한 생존기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워 가는

험난한 과정을 그림니다. 이 세 인물은 각기 다른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고자 낯선 땅과 험한 현실 가운데서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웠지만, 선지자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온전한 회복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언약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정치적인 안정과 공동체의 재건도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완성될 회복'을 기대하게 하며, 그 궁극적인 성취를 이루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번 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독하면서, 각기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들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참된 회복과 소망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 The Period of Ezra, Nehemiah, and Esther

BC 586 Fall of Judah , Destruction of the Temple

BC 538 Decree for the return from exile, Support for rebuilding the Temple

BC 516 Completion of the Temple reconstruction

BC 479 Esther becomes queen

BC 537 First return from exile (Zerubbabel, Jeshua)

BC 458 Second return from exile (Ezra)

BC 444 Third return from exile (Nehemiah)

Nebuchadnezzar → Cyrus → Cambyses → Darius → Xerxes → Artaxerxes

The post-exilic period—when Ezra, Nehemiah, and Esther were active—vividly shows how God's people were to live out their faith in foreign lands and under difficult circumstances. The book of Esther tells the desperate survival story of the Jews who remained in the Persian palace, while Ezra and Nehemiah describe the challenging process of rebuilding the temple and the walls in Jerusalem after returning from exile.

Each of these figures, in different places and in different ways, struggled to preserve their identity of faith amid unfamiliar lands and harsh realities.

Yet the stories of Ezra and Nehemiah feel like unfinished narratives. Although the temple was rebuilt and the walls were restored, the complete restoration that the prophets had longed for had not yet been fully realized. The people still failed to live in full obedience to the covenant, and both political stability and communal restoration remained incomplete. Therefore, these stories naturally lead us to anticipate a future and ultimate restoration, pointing us to Jesus Christ, who will bring that fulfillment.

This week, as we read Ezra, Nehemiah, and Esther together, let us reflect on the lives of those who were used by God in different places and circumstances. And through their stories, may we meditate on the true restoration and hope that will be fully accomplished in Jesus Christ.

[은혜 나누기] Faith Sharing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독하며,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As you read through the Bible this week, share a verse or passage that stood out to you.

적용 Application

1.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깊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현실은 무엇인가요? 그 앞에서 나는 회피하거나 무감각하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애통하며 나아가고 있나요?

2.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를 은사에 맞게 부르시고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무너진 영역을 세우는 일에 나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나요?

3.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불완전한 회복에 실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망을 통해 더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분적인 변화나 회복에 낙심하기 쉽지만, 장차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나는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나요?

1. Nehemiah heard that the walls were broken down, and he responded with deep sorrow, fasting, and prayer. What reality in your life today feels broken or overwhelming? Instead of avoiding it or becoming numb, are you bringing it before God with a heart of lament like Nehemiah?

2. Just as God rebuilt the broken temple and walls, He calls each of us in Christ according to our gifts and uses us as instruments of restoration. How are you

participating in rebuilding what is broken within your church and community today?

3. The people in the time of Ezra and Nehemiah were disappointed by an incomplete restoration, yet God used that disappointment to point them toward a greater and more complete restoration. Today, we too can become discouraged by partial change or limited restoration, but it will surely be completed in Jesus. How much are you longing for that day and living with that hope?

기도 Prayer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Share prayer requests with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오늘의 감사 기도 Today's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Close family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

3rd Week 욥기 Job 1-42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Praise: One family member selects a song of praise.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Prayer: One family member leads the prayer.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Message: One family member reads today's message aloud.

[오늘의 메시지] Today's Message

욥기는 시의 형식을 띤 지혜서입니다. 흔히 욥기의 주제가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욥기는 선한 사람이 고난받는 이유를 단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과 번영, 죄와 벌이라는 단순한 인과관계로 삶을 재단하는 태도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신뢰하도록 이끍니다.

욥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1 부(1-2 장)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통해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2 부(3-37 장)는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긴 논쟁이 이어집니다. 3 부(38-42 장 6 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창조 세계의 복잡성과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시며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에 욥은 무지함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4 부(42 장 7-17 절)에서는 하나님이 욥을 회복하시고, 친구들을 위한 중보자로 욥을 세우십니다.

이번 주 욥기를 함께 읽으면서 두 가지를 묵상해 봅시다. 먼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다음으로,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를 위해 시험과 고난을 겪고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Job is a wisdom book written in poetic form. It is often said that the theme of Job is to explain the cause of suffering, but the book itself does not give a definite answer as to why the righteous suffer. Instead, it challenges the mindset that judges life by a simple cause-and-effect formula such as godliness and prosperity, or sin and punishment. And in the midst of suffering that cannot be explained, it leads us to trust in God's sovereignty and wisdom.

Job can be divided into four main parts. Part 1 (chapters 1–2) shows, through the conversation between God and Satan, that Job's suffering begins under God's sovereign rule. Part 2 (chapters 3–37) contains the long debate between Job, his three friends, and Elihu. In Part 3 (38:1–42:6), God Himself appears. He speaks directly, revealing the complexity of creation and His sovereignty, which far surpass human understanding. In response, Job realizes his ignorance and repents in humility. Part 4 (42:7–17) shows God restoring Job and establishing him as an intercessor for his friends.

This week, as we read Job together, let us reflect on two things. First, let us deeply consider the surpassing wisdom of God our Creator. Second, may this be a time to look to Jesus, who, though without sin, endured testing and suffering for us and was afterward glorified.

[은혜 나누기] Faith Sharing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독하며,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As you read through the Bible this week, share a verse or passage that stood out to you.

적용 Application

1. 욥과 친구들은 고난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친구들은 흔한 인과응보 논리로 욥을 정죄했고, 욥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욥이나 욥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서도 본 적이 있나요?

2.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토로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마음속 깊은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나 태도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3. 욥은 폭풍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42:5).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나눠 봅시다. 솔로몬은 기도 응답으로 최고의 지혜와 부를 받지만,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불순종했던 적은 없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 지금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1. Job and his friends did not know the reason for his suffering. His friends condemned him based on a simple cause-and-effect view of justice, while Job poured out his sense of injustice before God. Have you ever seen yourself in either Job or his friends?
2. In the midst of suffering, Job spoke honestly to God about his heart. Jesus also expressed His deep anguish to God in Gethsemane. How can this example shape the way we pray and respond during times of suffering?
3. After encountering God who spoke out of the storm, Job confessed, "Now my eyes have seen you" (Job 42:5). Have you experienced coming to know God more deeply through suffering? How has that experience impacted your life?

기도 Prayer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Share prayer requests with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오늘의 감사 기도 Today's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Close family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

4th Week 시편 1 Psalm 1-36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Praise: One family member selects a song of praise.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Prayer: One family member leads the prayer.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Message: One family member reads today's message aloud.

[오늘의 메시지] Today's Message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자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에는 산문에는 없는 독특한 힘이 있습니다. 감정을 일깨우고, 상상력을 자극하며, 지성뿐 아니라 전 인격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견고한 신학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상을 담아야 합니다. 그 일을 바로 시가 합니다.

시편에는 총 150 편의 시가 있으며, 다섯 권으로 나뉩니다. 각 권의 마지막은 "아멘"이나 "할렐루야" 같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시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찬양이자 기도입니다. 특히 마지막 여섯 편의 시(145-150 편)는 "대찬양"(mega-doxology)으로 마치면서 찬양의 절정을 이룹니다.

시편 1 편과 2 편은 전체 시편의 서론으로, 시편의 주요 주제를 함축해서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의인, 의인과 악인의 대조와 갈등,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성취를 갈망하는 종말론적 관점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주제들은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시에서 나타납니다. 이번 주에는 시편 1-36 편을 함께 읽습니다.

Psalms is both praise and prayer directed to God, and at the same time, it is the word of God. Poetry has a unique power that prose does not have. It awakens emotion, stimulates imagination, and appeals not only to the intellect but to the whole person. Worship directed toward God must be built on solid theology, but at the same time, it must go beyond that. This is exactly what poetry accomplishes.

There are a total of 150 psalms, divided into five books. Each book ends with a doxology such as "Amen" or "Hallelujah." The entire Psalter is one grand song of praise and prayer. In particular, the final six psalms (Psalms 145–150) form a "mega-doxology," bringing the book to a climactic expression of praise.

Psalms 1 and 2 serve as the introduction to the entire book, summarizing its major themes. They present the righteous who delights in God's law, the contrast and conflict between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confidence in God's reign, God's promise to the Davidic line, and an eschatological longing for its fulfillment. These themes continue to appear throughout the rest of the Psalms. This week, we will read Psalms 1–36 together.

[은혜 나누기] Faith Sharing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독하며,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As you read through the Bible this week, share a verse or passage that stood out to you.

적용 Application

1. 시편 1-2 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내가 평소 생각하던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모습은 무엇이며, 시편 1-2 편이 말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2.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한복음 10:14-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의 이런 사랑을 생각하면서 시편 23 편을 다시 읽을 때, 어떤 부분이 새롭게 다가오나요?

3. 시편은 기쁨, 슬픔, 분노, 억울함 등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지만, 결국 탄식에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찬양은 절망을 막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시편의 시인들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찬양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1. Psalms 1–2 serve as the introduction to the entire Psalter, contrasting the blessed person with the wicked. What have you usually thought a blessed person or a wicked person looks like, and how does that differ from what Psalms 1–2 describe?

2. Jesus said, "I am the good shepherd; I know my sheep... and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John 10:14–15). As you reflect on the love of the Good Shepherd, what parts of Psalm 23 stand out to you in a new way?
3. The Psalms express a wide range of emotions—joy, sorrow, anger, and injustice—but they ultimately move from lament to praise. Praise is the greatest shield against despair. Like the psalmists, what is one small, practical habit you can begin today to open your heart to God and move toward praise?

기도 Prayer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Share prayer requests with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오늘의 감사 기도 Today's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Close family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